유메도노(夢殿, 몽전)(나라 시대 국보)

팔각형의 유메도노(몽전)는 호류지 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 중 하나로 쇼토쿠 태자(574~622 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던 사저 터에 세워졌습니다. 739 년에 학문과 연구를 전문으로 하던 승려 교신이 쇼토쿠 태자를 공양하기 위해 건물의 건립을 발원했습니다. 유메도노란 꿈의 신전이라는 뜻으로 쇼토쿠 태자의 꿈에 나타난 부처의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붕 위에는 반짝이는 보주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팔각형의 목조 당우는 일본에서도 공양당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유메도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쇼토쿠 태자를 추모하는 법요가 열리는 사당 내부에는 쇼토쿠 태자의 등신상이라고 전해지며 7 세기 불교 미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구세관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구세관음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입니다. 이 외에도 나라 시대(710~794 년)에 만들어진 교신 승도의 건칠상과 헤이안 시대에 유메도노의 재흥을 꾀한 도센 율사의 소상 등이 있습니다.